



숫자로 본 <비상> 호스트의 맨얼굴 만지기

1 처음은 늘 특별하다. <비상>도 마찬가지. 감독과 배우, 제작사가 모두 '첫 경험'으로 뭉쳤다. 박정훈 감독은 <조폭마누라> 조감독 출신으로 중편 <00씨의 하루>를 연출했으며 <비상>으로 첫 장편 데뷔했다. 주인공 시범 역의 김범도 첫 주연 타이틀을 얻었다. 제작사 역시 <비상>을 창립 작품으로 선택했다. 2008년 설립된 'DDOL Film'은 서울대 미학과 출신 영화광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영화사다. 이름처럼 '똥'기 하나로 새로운 장르 개발과 신선한 기획을 선보여 충무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7 <비상>은 시나리오 작업 후 7년 만에 완성됐다. "남자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영화. 지난 4월 촬영을 시작해 36회차의 일정을 거쳐 6월 말 크랭크업했다. 감독은 <비상>이 "패기 넘치는 젊음이 순수한 사랑에 목숨걸게 만드는 상황을 그렸다. 한편으로는 인생 한 방을 꿈꾸며 비상하고 싶어 하는 청춘을 담은 영화"라고 말한다.

100 박정훈 감독은 100% 리얼리티 정신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전 3개월 간 호스트바에서 생활했다. 그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 심지어 그들의 '애마'까지 섭렵해야 했다.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BMW의 G4, GTX 등 럭셔리 스포츠카와 바이크는 감독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에서 협찬받았다. 감독은 평소 바이크 사랑을 외치는 스피드 마니아. 도로를 가득 메운 명품 차들의 추격 신은 특별한 볼거리다. 또한 영화의 무대가 되는 청담동의 호스트바 '아마조네스'는 실제 청담동 유명 클럽인 '리누블랑쉬'로, 어렵게 36시간의 촬영 허가를 받았다. 매혹적인 분위기를 가진 공간에서 호스트들이 화려한 무대를 보여준다. 얼마 전 오랜 공백을 깨고 컴백한 '아이비'의 쇼케이스 무대가 되기도 했다.



28,911 김범의 공식 팬 카페 회원 수는 11월 현재 28,911명. 하루에 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온라인 카페를 방문한다. 김범의 인기는 일본에서도 이어진다. 김범은 이미 일본 소속사를 가지고 팬클럽을 창단한 상태. 드라마 <에텐의 동쪽>과 <꽃보다 남자>가 일본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돼 큰 사랑을 얻었다. 현재 그가 출연한 드라마 <드림>, 시트콤 <가침없이 하이킥> 등이 일본에 소개되고 있다. 덕분에 <비상> 역시 일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의 투자사인 '월드애플상사'와 '글로벌 미디어 코리아'는 촬영 전부터 김범의 차기작에 관심을 보였고 일본 극장판권과 DVD판권 및 부가판권을 시나리오 단계에서 선구매했다.

727,413 호스트들의 삶과 사랑을 다룬 <비상>. 작년 4월, 같은 소재의 영화 <비스티 보이즈>가 개봉했다. <비스티 보이즈>는 18세 관람가에도 불구하고 727,41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그 해 5월 첫째 주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비스티 보이즈>가 눈부신 조명 속 호스트들이 화장술을 보여준다면 <비상>은 호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춘의 방향을 보여준다. 시범(김범)은 영화배우를 꿈꾸지만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호스트가 된다. 그를 지켜봐 주는 호수(배수빈) 역시 첫사랑의 아픔을 간직한 남자다. 할리우드 대작이 준비한 12월 극장에서 두 남자가 한국영화의 '비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